

# 憬興撰 『無量壽經連義述文贊』 特異反切 研究

## - 百濟漢字音의 干涉을 中心으로 -

伊藤貴祥(이토 다카요시)\*

### 要約

백제 출신 승려 憬興이 저술한 『無量壽經連義述文贊』에는 53개 반절이 달려 있으며, 그 중 11개 반절이 중고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11개 반절을 분석한 결과 7개 반절이 백제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반절이 보여주는 특징과 기존 연구결과를 대비한 결과, 백제한자음에는 ① 見母와 溪母가 동일하게 /ㄱ/로, ② 模韻의 일부가 /와/, /아/로, ③ 庚<sub>三</sub>開韻과 靑韻이 /양/으로 반영되고, ④ 蟹攝 開口韻이 중세음보다 넓은 범위에서 /애/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 중 /ㄱ/의 부재를 보여주는 ①은 중세한국어와 일치하는 특징이다. ②, ③은 백제한자음의 상고음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③이 일본 吳音이나 베트남 한자음의 古層에도 발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②는 백제한자음에만 보이는 특징이다.

반절 『阿反』[之河反]에서는 ‘之’의 백제한자음이 상고음 /t/를 반영한 과열음이 아니라 중고음 /tɕ/를 반영한 과찰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제한자음이 신라한자음보다 후대의 한어음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憬興의 반절 중 6개에는 본고에서 ‘습음식 反切’이라고 부르는 특이한 방식을 따른다. 이 반절은 蔓/\*만/=馬/\*마/+安/\*안/처럼 반절상자와 반절하자를 이어

---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수료

서 발음하기만 하면 피반절자의 발음을 알 수 있는 특이한 반절이다.

핵심어: 憬興, 無量壽經連義述文贊, 反切, 百濟漢字音, 合音式 反切

## 1. 서론

조선시대 초기 문헌에 보이는 한자음이 중국의 어느 시기의 음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연구자마다 다양하지만, 최신의 종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伊藤智ゆき(2002)의 唐末長安音說이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초기한자음이 9세기에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해서 9세기 이전에 한반도 고유의 한자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9세기 이전의 고대한자음이 15세기 이후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새로운 한자음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한자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동일지명표기를 자료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는 다양한 시대의 한자음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완전히 동일한 음을 적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南豊鉉(2003)에서 소개된 7세기 新羅僧 順憬과 憬興의 반절은 『三國史記』 지명 자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順憬이 지은 『法華經音義』와 憬興이 지은 법화경주석은 현존하지 않지만 일본승 中算이 976년에 지은 『妙法蓮華經釋文』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알 수 있다. 順憬의 반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金正彬(2003, 2004)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順憬의 반절 중 ‘耶, 撻, 離, 珊, 篋’에 달린 반절을 분석하여, 이 반절들이 『三國史記』의 지명표기, 일본 吳音, 한어 上古音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妙法蓮華經釋文』에 인용된 憬興의 주석 중에는 반절이 4개 포함되어 있지만 모두 중고음과 일치하는 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고대한자음 연구의 자료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李丞宰(2008)에서 소개된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에는 53개 반절이 나타나며, 그 중 11개 반절이 중고음과 음이 일치하지 않는 독특한 반절이라고 한다.<sup>1)</sup> 본고는 이러한 특이 반절의 분석을 통하여 憬興이 사용했을 7세기 한자음의 특징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憬興의 반절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하는 것은 憬興의 모국어는 무엇이며, 憬興이 사용한 한자음이 어느 나라 한자음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憬興은 百濟 熊川州(현 公州)에서 태어났다. 生沒年代는 미상이지만 저술한 『三彌勒經疏』에 則天武后字 ‘曀’이 쓰이는 것으로 보아 沒年이 694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李丞宰 2008). 泗泚城이 점령당하고 百濟가 멸망한 것이 660년이므로 憬興이 태어났을 때는 아직 백제가 멸망하기 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憬興의 모국어는 백제어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李基文(1998: 47-48)에서는 梁書와 周書의 기사를 통해서 백제의 支配族은 高句麗語를 사용하고 被支配族은 韓系에 속하는 馬韓語를 썼을 것으로 보고, 『三國史記』 지명 등을 근거로 백제어가 신라어와 비슷한

1) 『無量壽經連義述文贊』 원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판본 중에서 최상의 것은 元祿12(1699)年本이며 『大日本續藏經』, 『大正新脩大藏經』, 『韓國佛教全書』 등 한국과 일본에서 근·현대에 편집된 총서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元祿12年本을 底本으로 사용하였다(池田昌広 2012: 16). 『大正新脩大藏經』에는 저본이 ‘元祿十二年刊宗教大學藏本’임이 명기되어 있는데, 宗教大學은 1925년에 天台宗大學, 豊山大學과 함께 大正大學으로 통합되었다. 본고에서는 大谷大學 소장 元祿12年本の 복사자료(이승재 교수 소장)를 참고하였다. 新潟大學 古文書·古典籍 컬렉션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元祿12年本은 新潟大學 佐野文庫에도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어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백제어가 신라어와 같은 계통에 속하는 비슷한 어휘를 가지는 언어라고 해도, 신라어와 다른 음운구조를 가지거나 다른 계통의 한자음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愷興이 사용한 7세기 한자음을 백제한자음으로 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언해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음 중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제외한 한자음을 중세한자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대비하는 의미로 ‘전승한자음’이나 ‘현실한자음’이라고 불리는 일이 많지만, 본고에서는 백제한자음과 시대적으로 구별된다는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세한자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한자음이 도입된 시기는 9세기쯤이고(伊藤智ゆき 2002), 고대어와 중세어를 나누는 시기, 즉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918년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한자음을 ‘중세’한자음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sup>2)</sup>

## 2. 『連義述文贊』 특이 반절 분석

愷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이하 『連義述文贊』으로 약칭)에는 53개 반절이 나타나며 그 중 ‘祚, 擲, 廓, 曄, 忪, 蔓, 冥, 曠, 賴, 僂, 汚’에는 중고음과 일치하지 않는 반절이 달려 있다(李丞宰 2008). 이 章에서는 11개 반절을 분석하여, 각 반절에 백제한자음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2) 고려한자음이 조선초기한자음과 같은 계통에 속한 것이었다는 이토 다카요시(2008)의 결론도 이 두 한자음을 합하여 중세한자음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된다.

被反切字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본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康僧鎧의 『佛說無量壽經』을 사용하였다. 『連義述文贊』에 인용된 본문부분은 康僧鎧의 『佛說無量壽經』과 완전히 일치한다. 憬興은 『連義述文贊』 중에서 주석을 다는 대상이 旻法護의 번역이라고 밝혔으므로(李丞宰 2008: 127), 인용 부분이 康僧鎧의 번역과 일치한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이는 康僧鎧 번역으로 전해져온 『佛說無量壽經』의 번역자가 실제로는 旻法護였는데, 후대에 訛傳되어 康僧鎧로 바뀐 결과로 보인다.

일본 불교학회에서는 『佛說無量壽經』의 번역자가 康僧鎧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정설이 되어 있으며, 실제 번역자에 관해서는 覺賢(佛馱跋陀羅)와 寶雲의 共譯(421년)이라는 설과 함께 旻法護이라는 설이 유력하다(滋野井恬 1966, 藤田宏達 1967).

## 2.1. ‘祚’의 반절

『連義述文贊』에서 憬興은 ‘祚’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 (1) (音02) 祚之阿反福也 助也 (卷上29중)  
 祚之河反助也 福也 (卷中51중)<sup>3)</sup>

憬興의 반절상자 ‘之’는 章母, 반절하자 ‘阿, 河’는 歌韻을 나타낸다. 玄應 音義에서는 ‘在故反, 徂故反’, 『刊謬補缺切韻』에서는 ‘昨故反’이 쓰이는데 이들 반절상자 ‘在, 徂, 昨’은 從母, 반절하자 ‘故’는 暮韻을 나타내므로 憬興과 玄應의 반절이 나타내는 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李丞宰

3) 주석을 인용할 때는 李丞宰(2008)에서 사용된 일련번호를 같이 제시한다. 『連義述文贊』에서의 출현위치는 李丞宰(2008)에 맞추어 『韓國佛教全書 第二冊』의 쪽수를 기준으로 한다.

2008: 147).<sup>4)</sup>

먼저 韻母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暮韻과 歌韻은 상고음에서 각각 魚部一等開口/-a/와 歌部一等開口/-a/에 대응하였다(王力 1980: 94). 두 韻部는 중고시기뿐만 아니라 상고시기에도 서로 다른 모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령 상고시대 사람이 반절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절을 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백제어가 중세한국어나 현대한국어처럼 저모음이 하나뿐인 언어였다고 가정하면 상고음의 魚部/-a/와 歌部/-a/는 백제어에서 구별 없이 /ㅏ/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祚’와 ‘阿, 河’는 모두 모음 /ㅏ/를 가지게 된다. 憬興의 두 반절은 이러한 백제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暮韻은 거성, 歌韻은 평성이므로 두 반절하자는 모음뿐만 아니라 성조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상고음에서도 평성과 거성은 음운론적으로 대립되는 성조이므로, 평성과 거성의 혼란은 백제한자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중세한자음 체계에서도 한어의 평성과 거성이 구별 되는데, 이와 달리 백제한자음 체계에서는 평성과 거성이 구별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은 반절을 설명할 수 있다.

성모 章母(照三母)/tɕ-/와 從母/dz-/는 무기과찰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무성과 조음위치에서 차이가 난다. 憬興이 두 성모를 같은 음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그의 언어에서는 유무성 및 치조음(alveolar)과 치조구개음(alveolo-palatal)의 대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위 반절은 ‘祚’의 백제한자음 발음이 상고음을 반영했었다고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祚’의 상고음 /dza/는 백제어 음운체계에 맞춰서 /<sup>\*</sup>ㅏ/가 되었고, 憬興은 그 한자음의 영향을 받아 위와

4) 본고에서는 중고음을 분석할 때 『廣韻』의 체계를 이용하지만 李丞宰(2008)은 邵營芬에서 분석된 『王三』의 체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운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같은 반절을 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반절은 단순히 상고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일단 백제한자음에 들어갔다는 것을 가정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2.2. ‘攪’의 반절

憬興은 ‘攪’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2) (音04) 攪古惡反亦裂也 足踰口裂也 亦折也 (卷上34하)

‘攪’은 玄應 音義에서는 ‘俱縛反, 九縛反, 古麥反’으로 주음되었다. 憬興의 반절상자 ‘惡’은 鐸韻(宕攝一等), 玄應의 반절하자 ‘縛’, ‘麥’은 藥韻(宕攝三等), 麥韻(梗攝二等)이기 때문에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李丞宰 2008: 153).

玄應의 반절에서 ‘攪’이 가지는 두 음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3) 藥<sub>合</sub>韻字가 반절하자로 쓰인 ‘攪’의 음주

- a. 自攪宜作攪 俱縛反 攪<sub>𠵼</sub>也 搏也 (增一阿含經 第三十六卷)
- b. 攪宜作攪 俱縛反 攪裂也 持也 (出曜經 第二卷)
- c. 攪裂字宜作攪 九縛反 說文:攪<sub>𠵼</sub> 蒼頡篇攪搏也 言獸臙卽攪

(佛本行集經 第二十六)

주석 (3)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宜作攪’(마땅히 ‘攪’으로 적어야 한다)이라는 주석으로 보아 藥<sub>合</sub>韻字으로 읽힐 때 ‘攪’은 ‘잡다, 움키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4) 麥<sub>開</sub>韻字가 반절하자로 쓰인 ‘攔’의 음주  
 打攔書或作馱 同古麥反 此亦假借珥 (入楞伽經 第四卷)

주석 (4)에서 나타나는 ‘或作馱(馱(귀를 베다)’으로 적기도 한다)이라는 주석으로 보아 ‘攔’은 麥<sub>開</sub>韻으로 읽힐 때 ‘귀를 베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入楞伽經』의 해당 부분 ‘須陀洹遠離與諸女人和合 不爲現在樂種未來苦因 遠離打攔嗚抱眇視’에서는 단순히 ‘때리다, 치다’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sup>5)</sup>

憬興이 주석을 단 ‘攔’은 ‘攔裂’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玄應 기준에 따르면 (3c)와 같이 藥<sub>合</sub>韻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憬興의 반절하자 ‘惡’은 鐸<sub>開</sub>韻이다. 이러한 운모의 불일치는 憬興이 백제한자음에 따라 반절을 단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憬興의 반절을 바탕으로 백제한자음을 재구하면 /\*각/이 된다. 백제어가 /과/와 /가/와 같은 음소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였다고 가정하면 중고음의 개음 /iw/가 백제한자음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2.3. ‘廓’의 반절

憬興은 ‘廓’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 (5) (音09) 廓古惡反爾雅大也 (卷中51하)

5) ‘攔’은 藥<sub>合</sub>韻, ‘馱’는 麥<sub>開</sub>韻이다. 따라서 ‘攔’ 자체가 두 가지 음과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攔’이 ‘攔’의 통가자로 쓰이기도 하고 ‘馱’의 통가자로 쓰이기도 하는 한자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일 수도 있다. 참고로 慧琳의 반절에는 玄應의 반절과는 달리 음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打攔’에서나 ‘攔裂’에서나 동일하게 麥<sub>開</sub>韻字가 반절하자로 사용되었다.



‘廓’은 玄應 音義에서 ‘口郭反’, 『刊謬補缺切韻』에서 ‘苦郭切’로 나타난다. 憬興의 반절상자 ‘古’는 見母인데 비해 玄應과 『刊謬補缺切韻』의 ‘苦, 口’는 溪母이기 때문에 이 둘은 차이가 난다(李丞宰 2008: 148-149).

憬興이 반절상자로 溪母/kh-/字가 아니라 見母/k-/字를 썼다는 사실은 ‘廓’의 백제한자음 초성이 /ㄱ/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고음의 유기성이 백제한자음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백제어가 중세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소 /kh/가 결락된 음운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憬興의 반절하자 ‘惡’은 鐸韻이고, 玄應 音義와 『刊謬補缺切韻』의 반절하자 ‘郭’은 鐸韻이므로 開合에서도 차이가 난다.<sup>6)</sup> 합구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제어가 /과/라는 음소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4. ‘曄’의 반절

憬興은 ‘曄’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6) (音19) 曄爲韶反華光盛也 又曄王輒反草木華貌 (卷中57하)

‘曄’은 『刊謬補缺切韻』에서 ‘云輒反’으로 주음되었다. 이 반절은 憬興의 ‘王輒反’이 나타내는 음과는 일치하지만 ‘爲韶反’과는 큰 차이가 있다(李丞宰 2008: 143-144).

李丞宰(2008: 144)에서는 “輒은 唇內入聲韻尾 /p/가 소멸하기 전의 음가인데 비하여 ‘韶’는 이 韻尾가 소멸한 뒤의 음가”라고 보았다. 그러나 입성의 소멸은 중고음과 근대음 사이에 일어난 음운변화이므로 시

6) 李丞宰(2008: 148-149)에서는 『王三』의 운분류에 따라 ‘郭’이 ‘惡’과 같은 鐸韻으로 보았지만 일반적인 중고음 분류로 ‘郭’은 鐸韻이다.

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게다가 宵<sub>A</sub>韻에 속하는 ‘韶’는 운미 /-w/를 가지기 때문에, ‘王輒反’으로 표기된 음이 변화해서 ‘爲韶反’으로 표기된 음으로 변했다고 본다면 /-p/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w/로 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어음운사에서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다.

상고음에서 宵<sub>A</sub>韻은 宵部三等開口/-ɣau/, 葉<sub>B</sub>韻은 葉部三等開口/-ɣap/에 해당한다(王力 1980: 81, 91). 따라서 ‘輒’과 ‘韶’는 중고음뿐만 아니라 상고음에서도 비슷한 운모를 가졌다고 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 ‘爲韶反’을 ‘曄’과 유사한 뜻을 가지는 ‘曜’의 음을 표기한 것으로 본다. ‘曜’는 『廣韻』에 ‘弋照切’로 나타나는데 이 음은 ‘爲韶反’의 음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曄’를 ‘曜’의 通假字로 사용하는 습관이 백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백제한자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 2.5. ‘松’의 반절

憬興은 ‘松’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7) (音21) 松止容衆從二反 懼心亂動也 (卷下67중)

李丞宰(2008: 144-145)는 ‘止容反’의 ‘容’을 鍾韻(平聲), ‘衆從反’의 ‘從’을 送韻(去聲)으로 보고 두 반절이 서로 다른 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從’이 중고음에서 거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나, 반절하자로 쓰일 때는 항상 평성운을 표시하고 거성운을 표시하기 위해 쓰이는 일은 없다.) 따라서 이 두 반절은 같은 음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중고음 음계에서 ‘止容反’과 ‘衆從反’은 반절상자가 章母를, 반절하자가 鍾韻을 나타내는 동일한 반절이다. 하지만 ‘二反’이라는 말은 두 반절이 나타내는 음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憬興이 두 반절을 다른 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 백제한자음의 영향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반절상·하자 네 개 중에서 어느 한자의 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는 정보는 없다.

## 2.6. ‘蔓’의 반절

憬興은 ‘蔓’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8) (音22) 蔓音萬 及也 亦作蔓馬安反 延長貌也 (卷下67하)

憬興의 반절하자 ‘安’은 寒韻(一等平聲)이다. 玄應 音義에서는 ‘莫槃反, 无願反, 無販反, 亡怨反’, 『刊謬補缺切韻』에는 ‘無販反’으로 표음되어 있는데 반절하자 ‘願, 怨, 販’은 願韻(三等去聲)이며 ‘安’과 나타내는 운모가 다르다(李丞宰 2008: 149).

‘蔓’은 다음자이다. 『廣韻』의 ‘母官切(...)蔓菁菜也’라는 기술에서 ‘蔓’이 ‘순무’의 뜻을 가질 때는 桓韻(一等平聲)으로 읽히고, ‘無販切(...)瓜蔓 又姓 左傳 楚有蔓成然’이라는 기술에서 ‘박 덩굴’ 뜻을 가질 때는 願韻(三等去聲)으로 읽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玄應 音義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은 ‘蔓’이 ‘이어지다’라는 동사적 의미를 가질 때에도 願韻(三等去聲)으로 읽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9) 蔓薤亡怨反 下餘戰反 蔓薤謂之連絲不絕無極也

7) ‘從’은 『廣韻』에서는 반절하자로 사용된 바가 없지만, 『一切經音義』에서는 평성운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예가 다수 발견된다.

위와 같은 의미구별을 전제로 憬興의 주석을 해석해보자. (8)의 주석은 『無量壽經』의 ‘各曼強健時 努力勤修善’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憬興은 먼저 ‘曼’의 발음이 願韻字인 ‘萬’과 같다고 하고, 그 뜻이 ‘及(닿다)’라고 하였다. 憬興은 그 다음으로 ‘曼’을 ‘蔓’으로 적기도 한다고 하여 ‘蔓’의 독음으로 ‘馬安反’을, 뜻으로 ‘延長貌(늘어서 길어진 모습)’을 제시하였다.<sup>8)</sup> 즉 憬興은 동사적 의미 ‘닿다’에 대한 독음으로는 願韻, 명사적 의미 ‘늘어서 길어진 모습’에 대한 독음으로는 寒韻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고음에서 ‘蔓’은 동사적인 의미로 쓰일 때 願韻으로 읽혔으므로 憬興의 주석 중 ‘音萬 及也’의 부분은 중고음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고음에서 ‘蔓’을 寒韻으로 읽었을 때 명사적인 의미를 가졌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憬興이 이미 제시한 ‘音萬’과 다른 음을 제시하려고 하였다면 그 음은 桓韻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憬興의 반절하자 ‘安’은 寒韻이지만 순음 뒤에서 개합은 중화되므로 憬興의 반절은 중고음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憬興의 반절 ‘蔓馬安反’은 중고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백제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馬’, ‘安’이 중국에서 반절상자, 반절하자로 사용되지 않고 한국의 차자표기에서 사용된다는 점(李承宰 2008)을 감안할 때 ‘蔓馬安反’은 憬興이 직접 고안한 반절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백제한자음을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2.7. ‘冥’의 반절

憬興은 ‘冥’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8) 이 설명에 따르면 ‘各曼強健時’는 ‘각자가 強健에 도달할 時로 해석되며, ‘各蔓強健時’는 ‘각자가 도달한 상태가 強健일 時로 해석된다.

(10) (音24) 冥鳴央反 暗昧無知也 (卷下68상)

‘冥’에 대한 玄應의 반절은 ‘莫庭莫定二反’, ‘覓經反 又迷定反’, 『刊謬補缺切韻』의 반절은 ‘莫經反’이다. 憬興의 반절하자 ‘央’이 陽韻(宕攝三等平聲)에 속하는 데에 비하여 玄應 音義와 『刊謬補缺切韻』의 ‘庭, 經’은 靑韻(梗攝四等平聲), ‘定’은 徑韻(梗攝四等去聲)이다. 攝에서 차이가 날 만큼 차이가 크므로 憬興이 한국의 고대음을 기술하였다고 보아야 설명이 된다(李丞宰 2008: 149-150).

憬興의 반절이 당시 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면 ‘冥’의 백제한자음을 /\*ㅁㅇ/으로 재구하게 된다. 靑韻의 재구음은 일반적으로 상고음 /eŋ/, 중고음 /eŋ/이므로 ‘冥’의 독음 /\*ㅁㅇ/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靑韻을 /-iaŋ/으로 재구하는 河野六郎(1968/1979)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冥’의 독음이 /\*ㅁㅇ/인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河野六郎(1968/1979)는 靑韻의 발음이 切韻 시기에 /-ieŋ/이었다가 慧琳 시기에 /-iaŋ/으로 바뀌었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화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靑韻의 발음이 切韻 시기부터 계속 /-iaŋ/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일본 吳音에서도 靑韻은 /-jau/로 반영되며(河野六郎 1978/1979), ‘冥’의 독음도 /mjau/이다. 베트남한자음에서 靑韻은 기본적으로 /-iŋ/으로 대응하되 ‘靑, 鶻, 鯖’/tʰaŋ/, ‘磬, 磬’/xaŋ/, ‘瑩’/waŋ/처럼 /-aŋ/으로 대응하는 예도 있다(三根谷徹 1972: 124). /-aŋ/을 가지는 한자에 기본적인 한자인 ‘靑’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aŋ/은 /-iŋ/보다 오래된 한어음을 반영한 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료들은 靑韻의 주모음이 저모음에서 중모음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憬興의 한자음이 반영한 7세기 이전의 한어음에서 靑韻이 /-iaŋ/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면 음소목록에 /ŋ/을 가지지 않는 한국어가 /-iaŋ/을 /양/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앞서 ‘冥’의 백제한자음을 /\*망/으로 본 것은 반절상자 ‘鳴’의 백제한자음을 중세한자음과 같은 /명/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鳴’이 속하는 庚三開韻의 중고 재구음은 /ian/(河野六郎 1968: 462)이므로 그 백제한자음도 /\*망/ 혹은 /\*망/일 가능성이 높다.<sup>10)</sup> 만약 백제어가 /ㅁ/라는 음소연결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였다면 ‘鳴’의 백제한자음은 /\*망/이었을 것이고, ‘鳴央反’으로 표음된 ‘冥’ 또한 /\*망/이었을 것이다. 반면 백제어에 그러한 제약이 없었다면 ‘鳴, 冥’의 백제한자음은 /\*망/이었을 것이다.

반절 자체에서는 /ㅁ/에 대한 제약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세한국어에 /ㅁ/가 드물다고 해서 이전 시기의 언어인 백제어에서도 /ㅁ/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sup>11)</sup> 오히려 중세한국어에서 /ㅁ/가 허용된 것을 고려하면 대응하는 양모음을 포함하는 /ㅁ/도 이전 시기에는 허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결국 백제어에서 /ㅁ/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鳴, 冥’의 백제한자음을 /\*망/으로 재구하기로 한다.

9) 靑韻의 음가는 적어도 慧琳의 시기(8~9세기)까지는 /-ian/이었다가 그 운미의 영향으로 주모음이 상승하여 /-ien/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한자음의 靑韻이 /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0) 베트남어에 체계적인 한자음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어에서 베트남어로 차용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 중에 映三合韻의 ‘命’에 기원을 가지는 ‘mang’ /maŋ/과 伯三開韻의 ‘伯’의 기원을 가진 ‘bác’ /bak/이 있다(王力 1948/1991: 547-548)는 사실도 河野六郎(1968)의 재구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11) 중세한국어에 /ㅁ/라는 음소결합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분포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5세기 문헌에 /ㅁ/는 나타나지 않고, 16세기 문헌에서도 연결어미 {-ㅁ/의 이형태나 /미ㅁ/의 축약형, ‘藐’의 독음으로 나타날 뿐 그 분포는 넓다고 할 수 없다.

## 2.8. ‘曠’의 반절

憬興은 ‘曠’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11) (音25) 又曠曠 下[牛對反] 生龔 (卷下68상)

‘曠’은 玄應 音義에서는 ‘牛快反, 五快反’으로, 『刊謬補缺切韻』에서는 ‘以醉反’으로 나타난다. 憬興의 반절상자 ‘牛’는 玄應의 ‘五’와 더불어 疑母에 속하므로 음운론적 차이가 없지만 『刊謬補缺切韻』의 ‘以’는 以母에 속하므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憬興의 반절하자 ‘對’는 隊韻(蟹攝一等)인데 비하여 玄應의 ‘快’는 怪韻(蟹攝二等), 『刊謬補缺切韻』의 ‘醉’는 至韻(止攝三等)이다. 이러한 차이는 憬興이 한국의 고대어를 독자적으로 기술한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李丞宰 2008: 153-154).

중세한자음에서 ‘對’는 합구성을 반영하지 않고 주요모음이 /으/로 반영된 ‘닥’로, ‘快’는 주요모음이 /아/로 반영된 ‘쾌’로 나타난다. 두 음은 주요모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백제한자음이 중세한자음과 같은 대응관계를 보였다면 (11)과 같은 반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반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백제한자음에서 ‘對’가 주요모음으로 /아/를 가지는 /돼/ 혹은 /대/였어야 한다. 이는 백제어의 모음 음가가 중세한국어와는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對’의 중고 재구음은 /tuɛi/ (王力 1980: 90)이기 때문에 그 주모음 /ɛ/가 /아/에 대응한다는 것은 백제어의 /아/가 중세어의 /아/보다 조금 뒤에서 나는 소리였거나 /으/가 중세어보다 조금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 2.9. ‘賴’의 반절

憬興은 ‘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12) (音30) 賴洛代反 孝經曰: 一人有慶兆民賴之 (卷下68중)

‘賴’는 『刊謬補缺切韻』에는 ‘理大反’으로 나온다. 반절상자 ‘洛’과 ‘理’는 둘 다 來母로 일치하지만 憬興의 반절하자 ‘代’는 代韻(蟹攝一等開口去聲), 『刊謬補缺切韻』의 ‘大’는 泰韻(蟹攝一等開口去聲)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다(李丞宰 2008: 145).

代韻을 포함하는 哈韻系와 泰韻系를 포함하는 泰開韻系는 重韻의 관계에 있으며, 慧琳 音義에서는 합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河野六郎 1968: 444-445), 중세한자음에서는 哈韻系가 /이/, 泰韻系가 /애/로 대응하고 서로 구별된다(伊藤智ゆ키 2002: 134-138). 그러나 憬興 반절에서 ‘代’가 ‘賴’의 반절하자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백제한자음에서 두 한자가 같은 모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예상한 것처럼 백제어에서는 /아/의 발음이 중세어보다 후설 쪽에서 났거나 /으/의 발음이 중세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났기 때문에 ‘代’가 /\*대/로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 2.10. ‘僥’의 반절

憬興은 ‘僥’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13) (音46) 僥五彫古遼二反 徼遇也 謂求親遇也 (卷下72중)

두 반절의 上字 중 ‘五’는 疑母, ‘古’는 見母에 속하므로 차이가 크며(李丞宰 2008: 145), 반절하자 중 ‘彫’는 蕭韻(四等平聲), ‘遼’는 小<sub>A</sub>韻(三等A上聲)에 속하므로 서로 等과 성조가 다르다.

중고음에서 ‘僥’는 다음자이며, ‘원하다’의 뜻으로는 見母/k-/+蕭韻, 국명 ‘僬僥’의 표기로는 疑母/ŋ-/+蕭韻으로 읽힌다.<sup>12)</sup> (13)의 주석은



『無量壽經』의 문구 ‘悵望僥倖’ 중 ‘僥’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중고음 기준에 따른다면 見母+蕭韻으로 읽어야 한다. 憬興의 반절 ‘五彫古遼二反’은 疑母+蕭韻 및 見母+小<sub>A</sub>韻을 나타내기 때문에 둘 다 음이 맞지 않는다.

‘僥’를 ‘五彫反’(疑母+蕭韻)으로 읽는 憬興의 첫째 독법은 다음자 구별 기준의 혼란, 혹은 聲符인 ‘堯’의 발음(疑母+蕭韻)에 이끌린 유추음으로 해석된다. 李丞宰(2008: 145)에서는 『連義述文贊』보다 100년여 뒤의 자료인 慧琳 音義에 ‘皎堯反, 經遙反’과 더불어 ‘五寮反’(疑母+蕭韻)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五彫反’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玄應 音義에 疑母+蕭韻으로 읽히는 ‘僥’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慧琳의 반절 ‘五寮反’ 또한 후대에 생긴 유추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독음의 혼란 혹은 유추음의 발생은 중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유추음이 憬興이 살았던 7세기부터 현재까지 계승되어 왔다는 점이다.<sup>13)</sup> 이 음은 다른 음과는 달리 중세한자음이나 현대한자음과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僥’를 ‘古遼反’(見母+小<sub>A</sub>韻)으로 읽는 憬興의 둘째 독법은 11세기에 편집된 『集韻』의 ‘吉了切 音矯 僥倖 求利不止貌’에 보이는 見母+篠韻(四等上聲)과 모종의 관련이 있을 수 있다. 小<sub>A</sub>韻과 篠韻은 등이 다르지만 같은 效攝의 上聲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僥’의 독음이 玄應이나 慧琳 시대의 見母+蕭韻(四等平聲)에서 見母+篠韻(四等上聲)

12) 첫 번째 독음은 ‘不僥, 僥倖’에 대한 玄應 音義의 음주 ‘古堯反, 克堯反’에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독음은 『廣韻』 ‘五聊切, 僥僥國名 人長一尺五寸 一云三尺’에서 찾을 수 있다.

13) 『新增類合下: 30b』에 ‘僥’가 ‘요형 요’로 나타나는(權仁瀚 2004: 289) 것으로 보아 중세한자음에서 ‘僥’의 독음은 ‘요’였던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변한 이유나 그것이 憬興의 반절에 표기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한어음을 반영한 가능성이 있는 이상 백제음의 반영으로 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 2.11. ‘汚’의 반절

憬興은 ‘汚’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14) (音53) 汚烏臥反 泥著物也 (卷下73下)

‘汚’는 玄應에서 ‘烏故反, 烏故烏胡二反, 於故反’으로 나타나고, ‘汚’의 이체자 ‘汙’는 玄應에서 ‘於故紆莖二反’, 『刊謬補缺切韻』에서 ‘烏故反’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玄應의 ‘紆莖反’이 憬興의 ‘烏臥反’과 같은 음을 나타내는데 玄應은 이 계통의 음을 따라 반절을 단 것으로 보인다(李丞宰 2008: 155).

玄應의 반절에 보이는 두 반절 중 ‘於故反’은 ‘汚(=汙)’의 일반적 중고음을, ‘紆莖反’은 중고시기까지 남아 있었던 상고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王力(1980: 77)에 따르면 ‘故’가 속하는 模韻은 상고음 /-a/에서 /-o/를 거쳐서 중고음 /-u/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莖’가 속하는 戈<sub>合</sub>韻의 중고음은 /-wa/이다. 즉 模韻의 상고음 /-a/와 戈<sub>合</sub>韻의 중고음 /-wa/는 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模韻이 /-a/에서 /-o/로 변하는 과정에 /wa/로 발음되는 단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憬興의 반절 ‘烏臥反’이 玄應의 ‘紆莖反’과 같은 음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憬興의 반절이 백제한자음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玄應의 ‘於故紆莖二反’이라는 형식을 보면, 그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독음은 먼저 제시한 ‘於故反’에 반영된 중고음 독음이고, 뒤

‘紆莖反’에 반영된 상고음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독음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憬興은 ‘汚’에 대해서 중고음을 제시하지 않고 상고음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백제한자음에서 ‘汚’의 발음이 상고음을 반영한 /\*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憬興의 被反切字 ‘汚’와 반절하자 ‘臥’는 분절음뿐만 아니라 성조에서도 차이가 난다. ‘汚’가 속하는 模韻은 평성, ‘臥’가 속하는 過韻은 거성이다. 평성과 거성의 혼란은 2.1.에서 살펴본 ‘祚’의 반절에도 관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제한자음의 특징일 가능성이 크다.

### 3. 백제한자음 분석

앞 장에서 살펴본 11개 반절이 중고음과 들어맞지 않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15) a. | 祚之阿反, [之河反] | 백제한자음(模韻=/아/ 등)         |
| b.      | 攔古惡反        | 백제한자음(/ɿw/= /∅/)        |
| c.      | 廓古惡反        | 백제한자음(/kh/없음, /w/= /∅/) |
| d.      | 嘩爲韶反        | ‘囉’의 통가자                |
| e.      | 恣止容衆從二反     | (불명)                    |
| f.      | 蔓馬安反        | 중고음 표기                  |
| g.      | 冥鳴央反        | 백제한자음(靑韻=/양/)           |
| h.      | 贖牛對反        | 백제한자음(백제어 모음체계)         |
| i.      | 賴洛代反        | 백제한자음(백제어 모음체계)         |
| j.      | 儼五彫古遠二反     | (불명)                    |
| k.      | 汚烏臥反        | 백제한자음(模韻=/아/ 등)         |

11개 반절 중 7개가 백제한자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

다. 이 장에서는 이 7개 반절에 반영된 백제한자음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3.1. 合音式 反切

11개 반절 중 ‘祚之阿反, 攔古惡反, 廓古惡反, 蔓馬安反, 汚烏臥反’의 5개 반절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반절상자가 종성을 가지지 않고 반절하자가 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5개 반절을 심도있게 고찰하기에 앞서 모든 반절상·하자의 백제한자음을 재구하는 작업을 선행하기로 한다.

앞서 ‘祚’, ‘汚’의 백제한자음을 /\*자/, /\*와/로 재구하였는데, ‘汚’의 한자음이 /\*와/인데도 불구하고 ‘祚’의 한자음이 /\*좌/가 아니라 /\*자/로 나타나는 것은 백제어에 /좌/라는 음소연결을 금지하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반절상자 중에는 ‘祚, 汚와 같은 模韻系에 속하는 ‘古, 烏’가 있다. 백제한자음이 상고음을 반영한 자음을 가진 한자와 중고음을 반영한 자음을 가진 한자가 공존하는 다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사용빈도가 낮은 ‘祚’가 상고음을 반영한 음을 가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古, 烏’도 상고음을 반영한 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古’의 백제한자음은 /\*과/ 혹은 /\*가/, ‘烏’의 백제한자음은 /\*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절 자체에는 합구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런데 백제 지명 자료에 나타나는 ‘古莫夫里-甘蓋와 같은 代用 관계(兪昌均 1983: 307)를 볼 때 ‘古’는 백제한자음에서 모음 /a/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古’의 백제한자음을 /\*과/가 아니라 /\*가/로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설정한 재구음과 함께 ‘祚, 攔, 廓, 蔓, 汚’의 반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6) a. 祚<sup>\*/자/去</sup> = 之<sup>\*/지/平</sup> + 阿<sup>\*/아/平</sup>  
 b. 攔<sup>\*/각/入</sup> = 古<sup>\*/가/上</sup> + 惡<sup>\*/악/入</sup>  
 c. 廓<sup>\*/각/入</sup> = 古<sup>\*/가/上</sup> + 惡<sup>\*/악/入</sup>  
 d. 蔓<sup>\*/만/平</sup> = 馬<sup>\*/마/上</sup> + 安<sup>\*/안/平</sup>  
 e. 汚<sup>\*/와/去</sup> = 烏<sup>\*/와/平</sup> + 臥<sup>\*/와/去</sup>

한어 음절을 IMVF/T로 나타낸다면, 일반적인 반절은 上字에서 I(M), 下字에서 MVF/T를 추출하여 IMVF/T라는 음절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컨대 ‘東 德紅切’의 ‘德’에서 /ㄷ/, ‘紅’에서 /ㅇ/을 추출하여 /동/이라는 음절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憬興의 ‘攔, 廓, 蔓, 汚’에 대한 반절은 이러한 과정 없이 上字와 下字를 연속으로 발음하기만 하면 표시된 음절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반절이 ‘如是→尔, 而已→耳, 之乎→諸’와 같은 合音字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合音式 反切’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攔, 廓, 蔓, 汚’의 반절뿐만 아니라 ‘祚’의 반절도 合音式 反切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之’는 상고음에서 /-iə/를 가졌기 때문에(王力 1980: 79), 백제한자음에서 /자/나 /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백제어에서 /ㄱ/의 음가가 중세한국어와 같은 [ai]였다면 ‘之’는 /저/나 /저/로 대응 되겠지만, 중세한국어의 모음체계가 후설모음에 치우친 기형적인 체계인 것을 고려할 때 /ㄱ/가 이전시기에 전설모음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ㄱ/의 음가가 [ɛ]나 [e] 같은 전설모음이었다고 가정하면 백제어에서 /ə/에 가장 가까운 모음은 /ㅏ/이므로 ‘之’의 백제한자음은 /\*자/혹은 /\*자/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祚’는 개음을 가지지 않으므로 ‘之’도 개음을 반영하지 않은 /자/로 보아야 憬興의 반절이 잘 설명된다.<sup>14)</sup>

14) ‘之’의 성모 章(照三)母의 상고음은 /tʰ/이지만(王力 1980: 74-76) 여기서는 중고음 /tɕ/를 기준으로 백제한자음을 예상하였다. 운의 변화는 압운을 통해서 시기마다 양상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성모는 주로 諧聲字를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여 (16a)를 고친 것이 다음 (17)이다.

$$(17) \text{祚}^{\circ}\text{자}^{\circ}/\text{去} = \text{之}^{\circ}\text{자}^{\circ}/\text{平} + \text{阿}^{\circ}\text{아}^{\circ}/\text{平}$$

‘冥’의 반절도 合音式 反切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18) \text{冥}^{\circ}\text{망}^{\circ}/\text{平} = \text{鳴}^{\circ}\text{망}^{\circ}/\text{平} + \text{央}^{\circ}\text{양}^{\circ}/\text{平}$$

이 반절의 기묘한 점은 반절상자가 피반절자와 완전히 동일한 음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절은 일반적인 반절 중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반절이 (16, 17)의 합음식 반절과 같은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면 ‘鳴’의 백제한자음이 /\*망/이 아니라 /\*마/였을 것이 예상된다. 베트남어에 보이는 고대한어 차용어 중에 ‘王’에 기원을 가지는 ‘vua’/vuə/, ‘仰’에 기원하는 ‘ngya’/ŋiə/가 운미 /-ŋ/이 빠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구전만으로 이루어진 고대 시기 한자음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운미의 탈락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19) \text{冥}^{\circ}\text{망}^{\circ}/\text{平} = \text{鳴}^{\circ}\text{마}^{\circ}/\text{平} + \text{央}^{\circ}\text{양}^{\circ}/\text{平}$$

이상의 논의는 ‘攔, 廓, 蔓, 汚’의 반절에서 발견되는 합음식 반절이라는 특수한 반절의 원리가 ‘祚, 冥’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다.

---

근거로 상고음을 재구하기 때문에 재구된 음이 정확히 어느 시기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章母에서 일어난 ‘t’>‘tɕ’ 변화가 운의 변화보다 이전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

### 3.2. 백제한자음의 특징

11개 반절 중에서 ‘曄, 恂, 蔓, 僂’의 반절을 제외한 7개 반절 ‘祚, 擲, 廓, 冥, 曠, 賴, 汚’의 반절이 백제한자음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는 반절에서 발견된 한자음의 특징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초성에 관한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 (20) 백제한자음 초성의 특징

- a. 초성으로 /kʰ/를 가지는 한자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廓)
- b. 무성자음과 유성자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祚)
- c. 치조음과 치조구개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祚)

이들은 모두 중세한자음과 일치하는 특징이며, 백제어의 초성체계가 중세한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백제어 음운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음소 /k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20a)의 특징은 백제지명자료에서 見母, 溪母, 群母가 서로 대응된다는 兪昌均(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李丞宰(2013b)에서도 백제어 음운체계에서 /kʰ/를 독립한 운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兪昌均(1983)은 상고음에 따라 章母(照三母)를 /t/로 보고 從母/dz/와 대비하지 않았지만 백제어가 유무성의 대립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李丞宰(2013b)는 백제어 음운체계에 /tɕ, tɕ, tɕʰ, dz/ 네 가지 파찰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둘 다 본고의 결론과 맞지 않는다.

백제한자음의 유무성 대립 여부는 李丞宰(2013b)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백제한자음과 일본 吳音의 관련성을 논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憬興 반절에 보이는 유무성의 혼동은 단 하나의 반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므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자료라고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

다음으로 중성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본다.

(21) 백제한자음 중성의 특징

- a. 模韻이 /와/, /아/로 반영된다. (‘祚’, ‘汚’, ‘古’, ‘烏’)
- b. 之韻이 /아/로 반영된다. (‘之’)
- c. 庚<sub>三</sub>韻과 靑韻이 /양/으로 반영된다. (‘鳴’, ‘冥’)
- d. 蟹攝 開口가 /애/로 반영되는 범위가 넓다. (‘賴’)
- e. 蟹攝 合口가 /왜/로 반영되는 범위가 넓다. (‘贖’)
- f. 개음 /ɪw/, /w/는 /ㄱ/ 뒤에서 /∅/로 반영된다. (‘擲’, ‘贖’)

초성과는 달리 중성의 특징은 대부분이 중세한자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불일치의 첫 번째 원인은 반영한 한어음의 시대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원인은 백제어와 중세어의 모음 음가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21a)와 관련해서 兪昌均(1983)에서는 模韻의 백제한자음 주모음을 /ə/로 보았다. 그런데 제시된 자료 중에는 ‘155. 古莫夫里-甘蓋처럼 ‘古’를 /가/로 읽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111. 古尸伊岬城’처럼 ‘古’가 /고/로 읽히는 것이 분명한 자료도 있다.<sup>15)</sup> 따라서 백제한자음에서 模韻字가 주모음으로 /ㅏ/만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모음으로 /ㅏ/를 가진 독음이 다른 주모음을 가진 독음과 공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6)</sup>

(21b)와 관련해서 兪昌均(1983)에 따르면 백제 지명 자료에 나타나는

15) 兪昌均(1983)에서는 ‘古尸’를 ‘岬’의 새김 ‘꽃’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16) 신라한자음이기는 하지만 鄉札에서 ‘古’가 항상 /고/로 읽히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之韻字로는 ‘子, 其, 己, 基, 史’가 있으나 다른 한자와 互用된 예가 드물어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1c)와 관련해서 兪昌均(1983)에서는 대부분 梗攝字의 주모음을 /ə/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梗攝字가 주모음으로 /ㅏ/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41. 省大兮=蘇泰縣’에서는 ‘省’과 ‘蘇’가 같은 음절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省’은 梗韻三等開口, ‘蘇’는 模韻이며 본고의 재구에 따르면 모두 백제 한자음이 모음으로 /ㅏ/를 가지는 운이다.

(21d)에 관해서 兪昌均(1983)에서는 蟹攝開口 중 一等 哈韻 ‘開, 乃, 海, 台’의 주모음이 /ə/, 一等 泰韻 ‘大, 奈, 盖’의 주모음이 /a/, 二等 皆韻 ‘皆, 解, 戒’의 주모음이 /ə/, 二等 佳韻 ‘買’의 주모음이 /ɜ/ 혹은 /i/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들 주모음 음가는 귀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고음의 재구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에 불과하다. 사실 蟹攝開口字가 관련된 대용 자료는 ‘147. 古祿只 一云開要’, ‘64. 加知奈縣 一云加乙乃’, ‘56. 皆火縣 (與) 或稱戒發’의 세 가지밖에 없다. ‘古’를 /가/로 보는 본고 입장에서는 147.의 자료를 통해서 ‘開’가 속하는 哈韻의 백제한자음을 /애/로 볼 수 있고, 64.의 자료를 통해서 皆韻이 哈韻과 같은 음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4.는 같은 皆韻끼리 대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음가를 추정하는 자료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본고에서는 兪昌均(1983)의 자료도 ‘賴’의 대한 憬興의 반절과 같이 皆韻과 哈韻이 모두 /애/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21e)에 관해서 兪昌均(1983)에서는 蟹攝一等合口인 泰韻에 속하는 ‘會’의 백제한자음 주모음을 /a/로 보았는데 이 한자음 호용례가 없기 때문에 상고음 재구음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백제 지명 자료에는 蟹攝合口字가 ‘會’ 하나밖에 없으므로 본고의 결과와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1f)에 관해서 兪昌均(1983)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성과 성조에 관련된 특징을 살펴본다.

(22) 백제한자음 중성·성조의 특징

- a. 운미 /ŋ/이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鳴’)
- b. 평성과 거성이 일부 혼동한다. (‘祚’, ‘汚’)

한자 독음에 운미가 반영되지 않는 현상은 兪昌均(1983)의 지명 자료에서도 흔히 관찰되지만, 이는 한자음 자체에서 운미가 탈락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운미 부분을 무시하고 지명을 표기하는 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萬葉假名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鳴’의 백제한자음이 /마/라는 발견은 지명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한자음은 합음식 반절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른 방증 자료를 찾기 전까지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兪昌均(1983) 및 李丞宰(2013b)에서는 성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라한자음에서 같은 경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順憬이 평성자 ‘離’에 대한 반절하자로 거성자 ‘智’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金正彬 2004). 다만 順憬은 동시에 상성자 ‘響’의 발음을 평성자 ‘鄉’으로 표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신라한자음이 꼭 평성과 거성 사이에서만 혼란을 보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절이 보여주는 백제한자음의 특징 중에서 초성에 관한 (20b, c)와 같은 특징은 선행연구 결과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초성으로 /kʰ/를 가지는 한자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20a)과 模韻이 /아/로 반영되는 것(21a), 庚<sub>三</sub>韻과 靑韻이 /양/으로 반영되는 것(21c), 蟹攝 開口가 /에/로 반영되는 범위가 중세한자음보다 넓었다

는 것(21d)은 선행연구 결과 혹은 선행연구 자료와 잘 일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본문에서는 憬興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에 나타나는 11개의 특이 반절을 분석하고 선행연구와 대비해 보았다. 반절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백제한자음의 특징 중에서 확실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3) 확실시되는 백제한자음의 특징

- a. 초성으로 /kʰ/를 가지는 한자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 b. 模韻의 일부가 /와/, /아/로 반영된다.
- c. 庚<sub>三</sub>開韻과 靑韻이 /양/으로 반영된다.
- d. 蟹攝 開口韻이 /애/로 반영되는 범위가 중세음보다 넓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앞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4) 검토 대상인 백제한자음의 특징

- a. 之韻이 /아/로 반영된다.
- b. 蟹攝 合口韻이 /왜/로 반영되는 범위가 중세음보다 넓다.
- c. 개음 /iʷ/, /w/는 /ㄱ/ 뒤에서 /∅/로 반영된다.
- d. 운미 /ŋ/이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 e. 평성과 거성이 일부 혼동된다.

(23b, c), (24a)의 특징은 백제한자음의 모태음과 관련이 있는 특징인데 이는 모두 상고음 혹은 전기중고음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23c)의 특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吳音 전반 및 推古遺文 字音 ‘明’/ma/ 등에도 보이는 특징이며, (24a)도 吳音 ‘己’/gö/, ‘其’/gö/, ‘欺’/gö/, ‘期’/gö/ 등과, 推古音 ‘止’/tö/, ‘意’/ö/, ‘里’/rö/, ‘己’/jö/, ‘己’/kö/ 등에도 보이는 특징이다.<sup>17)</sup> 그러나 (23b)의 특징은 일본 吳音, 推古音이나 베트남 한어 차용어에는 보이지 않으며, 백제한자음의 모태음이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憬興의 반절을 백제한자음 모태음의 상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3.1.에서 논한 바와 같이 ‘祚’의 반절상자 ‘之’의 백제한자음은 상고음 /t/를 반영한 궤열음이 아니라 중고음 /te/를 반영한 궤찰음을 초성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백제한자음이 한 시기의 한어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백제한자음은 적어도 ‘t)te’의 변화가 일어난 후의 한어음을 반영하였다고 보게 된다. 성모의 변화는 운모의 변화와 달리 변화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신라 목간자료에서 ‘之’가 종결어미 ‘-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李丞宰 2013a)으로 보아 ‘之’의 신라한자음이 /\*다/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t)te’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한어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실은 백제한자음이 신라한자음보다 후대의 한어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는 반절을 이용한 한자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지명 표기를 이용한 기존 방법을 보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한어연구사 관점에서 흥미로운 습音式 反切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서 고대 시기 반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 고대한자음에 대한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7) 吳音은 河野六郎(1978/79), 推古音은 趙大夏(2000)에서 인용하였다.

## 參考文獻

- 金正彬(2003), 「日本『妙法蓮華經釋門』에 나타나는 新羅 順憬師의 反切에 대하여(上)-中國漢語史와 日本吳音의 比較를 통해서」, 『口訣研究』 11, 口訣學會, 275-298.
- 金正彬(2004), 「日本『妙法蓮華經釋門』에 나타나는 新羅 順憬師의 反切에 대하여(下)-漢語史와 日本吳音의 比較를 통하여」, 『口訣研究』 13, 口訣學會, 99-127.
- 權仁瀚(2004),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 南豐鉉(2003), 「新羅僧 順憬과 憬興의 法華經 註釋書에 대하여」, 『口訣研究』 10, 口訣學會, 31-46.
- 俞昌均(1980), 『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 I』, 啓明大學校出版部.
- 俞昌均(1983), 『韓國 古代漢字音의 研究 II』, 啓明大學校出版部.
- 李基文(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 李丞宰(2008), 「7世紀 末葉의 韓國語 資料-環興撰『無量壽經連義述文贊』의 註釋을 중심으로」, 『口訣研究』 20, 口訣學會, 123-178.
- 李丞宰(2013a),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震檀學報』 117, 震檀學會, 169-213.
- 李丞宰(2013b), 『漢字音으로 본 百濟語 子音體系』, 태학사.
- 이토 다카요시(2008), 『高麗時代 墓誌銘詩 押韻 研究-高麗 漢字音의 干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趙大夏(2000), 「推古朝遺文 字音假名の 一性格」, 『日本語學研究』 2, 한국일본어학회, 257-272.
- 羅常培·周祖謨(1958/2007), 『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第一分冊)』, 中華書局.
- 周法高(1970/84), 「論上古音和切韻音」, 『中國音韻學論文集』, 中文大學出版社.
- 王力(1948/91), 「漢越語研究」, 『王力文集』 18, 山東教育出版社.
- 王力(1980), 『(修訂本) 漢語史稿』, 山東教育出版社.
- 池田昌広(2012), 「憬興『無量壽經連義述文贊』所引外典考」, 『佛敎大學 歷史學部論集』 2, 佛敎大學, 1-20.

- 伊藤智ゆき(2002), 『朝鮮漢字音研究』,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 河野六郎(1955), 『慧琳衆經音義の反切の特色』, 『中国文化研究会會報』 5(1).  
(河野六郎(1979)에 재록).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東京大学 博士学位論文 (河野六郎  
(1979)에 재록).
- 河野六郎(1976), 『「日本吳音」に就いて』, 『言語學論叢』 15, 3-16 (河野六郎  
(1979)에 재록).
- 河野六郎(1979), 『河野六郎著作集 第2卷』, 平凡社.
- 滋野井恬(1966), 『無量壽經漢訳者論議に寄せて』, 『大谷學報』 45(3), 大谷学会,  
31-43.
- 藤田宏達(1967), 『「無量壽經」の訳者は誰か』, 『印度學仏敎敎學研究』 15(2), 日本  
印度學仏敎敎學會, 22-31.
- 三根谷徹(1972), 『越南漢字音の研究』, 東洋文庫.

〈문헌자료〉

- 『佛說無量壽經』 大正新脩大藏經, Vol.12, No.0360 (中華電子佛典協會 공개자  
료)
- 『無量壽經連義述文贊』 大谷大學 소장 元禄12年本 (이승재 교수 소장 복사자  
료)
- 『入楞伽經』 大正新脩大藏經, Vol.16, No.0671 (中華電子佛典協會 공개자료)
- 『一切經音義』 大正新脩大藏經, Vol.54, No.2128 (中華電子佛典協會 공개자  
료)
- 『廣韻』 張士俊澤存堂本 (周祖謨 校本, 中華書局, 1960)
- 『集韻』 北京圖書館所藏 宋本 (中華書局 영인본, 1989)
- 『新增類合』 金東旭 교수 소장본 (檀國大學校 東洋學敎硏所 영인본, 1972)

주 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E-mail: takayoshi2000@hotmail.com

접수일자: 2014. 06. 01.

심사일자: 2014. 07. 08.

게재결정: 2014. 07. 31.

## 憬興撰『無量壽經連義述文贊』特異反切研究 - 百濟漢字音の干渉を中心に -

伊藤貴祥

百濟の僧憬興による『無量壽經連義述文贊』には53個の反切が含まれており、その内11個の反切は中古音とは異なる読音を示している。この11個の反切を分析した結果、7つの反切が百濟漢字音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れらの反切が示す特徴と既存の研究結果を比較した結果、百濟漢字音には①見母と溪母が共に/ㄱ/で現れ、②模韻の一部が/ㄹ/もしくは/ㅇ/で反映され、③庚<sub>三</sub>韻と青韻が/ㅁ/で反映され、④蟹攝開口韻が中世漢字音より広い範囲で/ㅚ/で反映されるという特徴が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ㄱ/の不在を示す①は中期朝鮮語に通じる特徴である。②と③は百濟漢字音の上古音的性格を示しているが、③が日本語の呉音やベトナム語漢字音の古層にも見られるのとは対照的に、②は百濟漢字音にのみ見られる特徴である。

また、「祚[之阿反]之河反」という反切からは「之」の百濟漢字音が上古音/ㄱ/ではなく、中古音/te/を反映していた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る。これは百濟漢字音が新羅漢字音より新しい漢語音を反映していた可能性を示唆している。

憬興の反切には本稿で「合音式反切」と名付けた特殊な方式によるものが6つ含まれている。この反切は蔓<sup>マ</sup>旦<sup>マ</sup>=馬<sup>マ</sup>旦<sup>マ</sup>+安<sup>ア</sup>旦<sup>マ</sup>のように、反切上字と반절하字を続けて発音するだけで被反切字の発音を知ることができる特殊な反切であった。

キーワード：憬興、無量壽經連義述文贊、反切、百濟漢字音、合音式反切